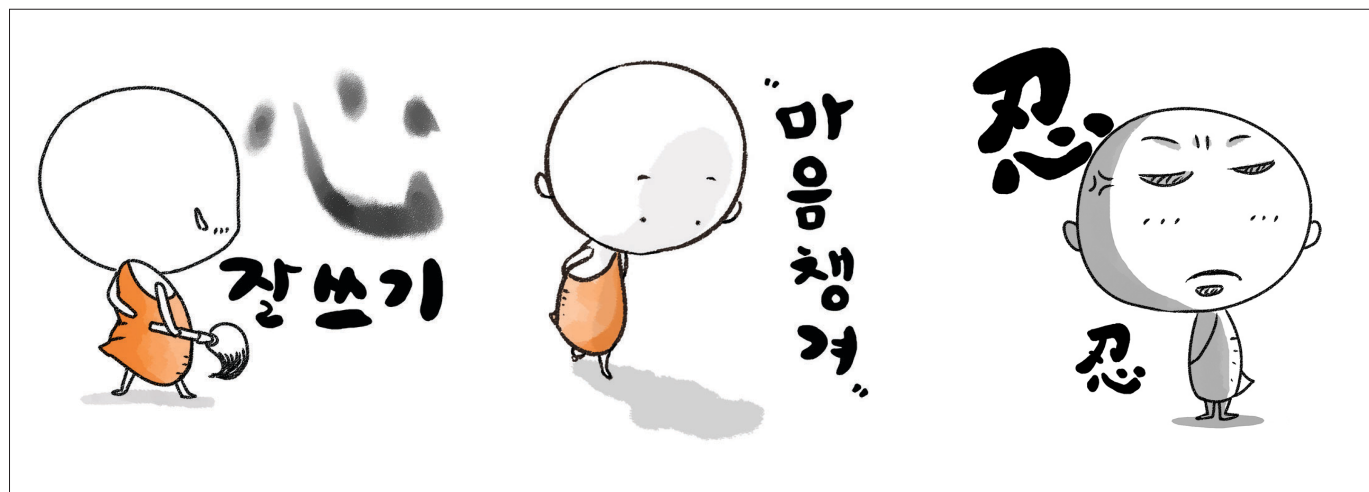


# '이모티콘'으로 부처님 가르침 배워요

만화가 지찬 스님 '힘내어라' 출시... 카카오톡에서 서비스



'마음챙겨' '수행중' '붓다데이' 등 불교 캐릭터를 전면으로 표방하는 지찬 스님의 '힘내어라' 이모티콘이 SNS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글씨를 넣어 부처님의 말씀을 유쾌하게 전달하고 있다.

붉은색 가사를 입은 동자승이 붓을 들고 마음 '심(心)' 자를 쓰고 있으면 그 진지함과 귀여움이 범벅이 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또 어느새 도끼눈을 한 동자승이 분한 표정을 지으면 주변으로 '인(忍)' 자가 발산되면서 화난 상태가 우스꽝스럽게 표현된다. 바로 만화가 지찬 스님이 출시한 이모티콘의 캐릭터들이다.

캐릭터 어라는 각 불교권 스님들의 가사 형식을 참고해 최대한 간단한 복장의 동자승을 설정하고, 웃는 모습, 인상 쓰거나, 게슴츠레한 표정 등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를 개발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님은 "이번 이모티콘은 귀엽기만한 얼굴이 아닌

도록, 그림에 간단한 단어나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 쪽에서는 글자를 자체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고민 끝에 캐릭터의 동작에 글을 삽입했죠. 이는 서로에게 위로·위안을 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챙겨, 붓다데이, 수행 등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 눈길 "소통으로 위로 얻으면"

라, 재미를 더하기 위해 표정을 다양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법명보다 자신의 메인 캐릭터 '어라'로 더 유명한 지찬 스님은 이모티콘 출시로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즐겁게 배웠으면 한다고 취지를 전한다. "대중들이 동자나 스님 캐릭터를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

는 서로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통의 기능 중 하나인 메신저는 문자는 물론 이모티콘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가르침도 넘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 가능하면 즐겁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통해 좀더 행복해지고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향불 미학으로 윤회의 의미 담아내

이길우 작가 개인전 6월 30일까지

향불미학을 통해 소멸과 생성, 윤회의 의미를 작품에 담아내는 이길우 작가의 전시가 6월 30일까지 나무 모던 앤 컨템퍼러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길우 작가는 인두와 향불로 한지를 태운 여러 겹의 이미지를 배접시켜 디폴트 형식의 운동감 있는 평면화면을 구성한 작품으로 국내외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다각적인 시각적 문화를 포착해낸다. 여기에는 서양의 물질만능주의, 연연인 숭배, 상업주의와 그에 상반되는 동양의 영성, 명상, 그리고 자연

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그가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담아낸다.

작가는 두 가지의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모습을 표현 윤회를 보여준다. 더불어 인간의 본성과 미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뒤섞어 놓는다. 이를 통해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콘텍스트와 복합과 융합이 키워드인 현 시대에 강한 울림을 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치밀하고 밀도 있는 향불 자국의 불규칙적인 망점과 자연 풍경 이미지의 결합이 부각된 작품을 통해 향불 미학의 심도 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다. (02)745 2207

정혜숙 기자



'그곳에가고싶다' 부분도. 손지에 향불

##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권력가·재벌·폭력배가 만든 욕망의 역사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판 '강남 1970'

영화 '강남 1970'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의 완결판이다. 유하 감독은 거리 3부작을 만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군사문화의 폭력성이 지배했던 사춘기, 수컷 되기와 남성성을 강요 받았던 고등학교 이래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제도 교육이 어떻게 폭력성을 키워내는가를 다뤘고, '비열한 거리'에서 돈이 형님이 되는 사회, 돈이 폭력성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다뤘다면 '강남 1970'은 권력이 폭력을 소비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거리 3부작'을 관통하는 주제는 여전히 폭력성과 청춘이라는 두 가지 테마의 공존과 충돌. 중심이 편입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는 뒤틀린 청춘의 초상이다."

"강남 1970'의 줄거리는 단선적이다. 호적도 없는 고아인 종대(이민호)와 용기(김래원)가 전당대회 횡령 작전에 투입되면서 인생의 길이 갈리게 된다. 종대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김우의 가족이 되고, 용기는 명동파의 중간 보스가 된다. 두 사람은 정치권까지 개입된 강남개발의 이권다툼의 한 복판에 서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백미는 '진홍탕 액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을 통해 욕망을 향해 달리는 인간군상의 참혹함을 잘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1970'의 마지막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강남을 형성하는 데 갖은일을 다했던 경쟁자들은 이용만 당할 뿐 정작 강남의 주인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다. 강남은 지닌 자들의 아성인 것이다.

2012년 발매된 사이의 여섯 번째 정규 앨범 '싸이6 Part 1'의 타이틀곡인 '강남스타일'은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강남스타일'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코믹한 뮤직비디오의 영향이 크다.

기실 '강남스타일'의 제목은 역설이다.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고 한물 간 '말춤'을 추고, 목욕탕에서 수영장처럼 수영을 해내고,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해수욕장처럼 해수욕을 즐기는 사이의 모습은 굳이 분류하자면 강남이 아니라 강북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북스타일과 강남스타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소위 '강남좌파'(486세대와 일부 50대로 구성된 중산층 계급에 속하면서도 정치사회



영화 '강남 1970'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의 완결판으로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을 통해 욕망을 향해 달리는 인간군상의 참혹함을 잘 고발하고 있다.

강남은 지닌 자들의 아성 이전투구(泥田鬪狗) 진홍탕 액션 욕망의 인간군상 참혹함 그려 "태생에는 남과 북이 있어도 불성에는 차별이 있으랴"

의식이 전보적인 이를 일컫는 말"을 제외하고 나면 강남의 정치 지형은 보수 일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남의 보수 성향은 지역주의(영남 대호남, 세대주의(20~40대 대 50~70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계급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희망의 사다리'가 견히지 않은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

흔히 강남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것은 넓은 도로를 메운 외제차, 서민들의 한 달 봉급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상품들을 전시한 명품관, 타워팰리스로 상징되는 펜트하우스, 즐비한 학원과 성형의 과와 룩살롱 등이다.

"강남 1970'은 돈이 지상 최고의 가치가 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강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 알 수 있듯 군부독재 시절 권력가와 재벌과 조직폭력배들이 만들어낸 욕망의 역사가 바로 강남의 형성사

인 것이다. 그리고 월남 베이비 붐 세대(1970~74년생) 중 중산층 이상의 계급 2세대들(90년대에 오렌지족이라고 명명되었던)이 만들어낸 소비문화가 강남의 발전사인 것이다.

강준만 교수는 <강남 좌파>에서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은 대학 입시전쟁"이라고 정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사교육비는 확대되었고, 그 결과 강남의 학원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374개에서 826개로 2배나 증가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고교와 대학은 A급(과학교, 외고→SKY 서울, 고려, 연세대) 1만 명, B급(과학교, 외고, 자사고→서울 지역 11개 대학) 3만 명, C급(일반 고등학교→서울 지역 외 대학교)으로 계급화되었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A급 대학인 SKY에 입학하는 행운을 갖는 이는 결국 대부분 강남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

'부의부빈의빈'의 대물림이라는 서글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욕조 해능이 오조 흥인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아래와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저는 영남에서 온 해능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태생이 하강은 영남 오랑캐가 감히 부처가 되려 하느냐?" "사람의 태생에는 남과 북의 차별이 있어도 부처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실로 옳은 말이다. 사회적 계급성에는 강남과 강북이라는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불성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다.

유용오 작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율동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구입이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합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신간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기 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응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몸에 받은 대원문재현선사님으로 이어진 법맥과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날날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